

5~10도 경사땀 잠금장치 안풀려 무용지물

본보 작동 시험...선박 기온 응급상황선 망치 등 사용해 전국 여객선 수평 상태에서 점검해와...또다른 참사 우려

국내 주요 항로 여객선에 설치된 구명벌(구명 뗏목)이 선체가 기울 상태에서 사실상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의 복원력이 상실돼 선체가 기울 응급 상황에서 작동되지 않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명벌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평 상태에서만 구명벌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일보가 24일 세월호에 설치된 구

명벌을 투하 시험한 A업체에서 진수장치(구명 뗏목)의 작동 여부를 시험한 결과, 5~10도 가량의 경사에서 구명벌을 바다에 떨어뜨리는 핸들(레버)이 진수장치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침몰 등 긴급 상황에서 꺼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진수장치엔 구명벌이 담긴 하얀색 컨테이너 캡슐이 들어 있는데, 50cm 길이의 T자형 핸들이 진수장치에서 분리돼야만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구명

벌이 바다로 떨어진다.

특히 수평 상태에서도 T자형 핸들은 잘 잡아당겨지지 않았다. 개당 100kg의 구명벌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T자형 핸들에 가해지면서 진수장치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0월과 올해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을 점검한 이 업체의 직원은 "사람이 (구명벌이 담긴) 캡슐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진수장치를 누르지만 있어도 핸들이 빠지지(분리되지) 않는다"면서 "선박이 기울 상태에서 망치 등 도구를 사용해야만 핸들을 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선박구명설비기준 제58조

엔 선박이 좌우로 20도 또는 앞뒤로 10도 가량 기울더라도 구명뗏목을 신속하게 물 위에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핸들에 걸리는 힘은 150N(뉴턴)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정도면 15kg짜리 추를 들고 지탱하는 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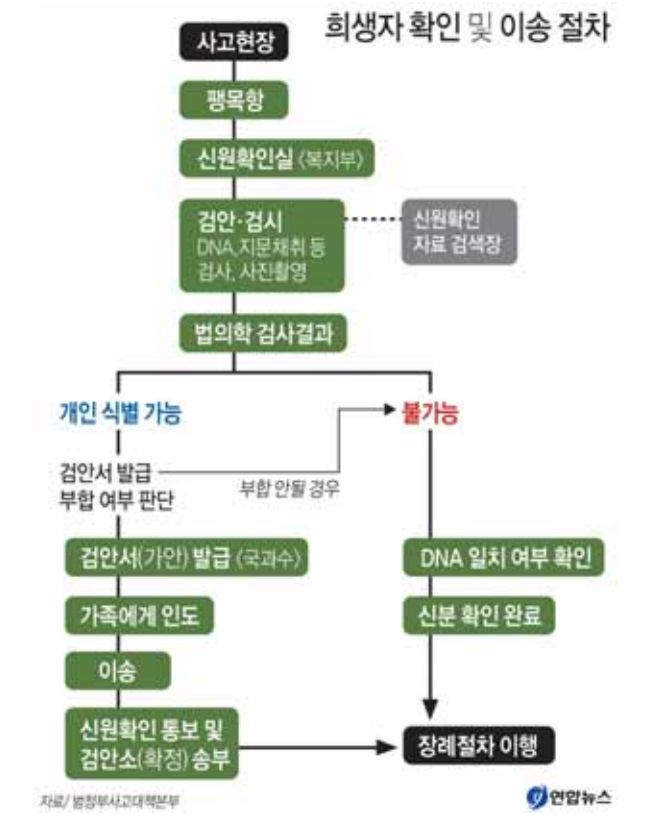
설비기준대로라면 5~10도 정도의 경사에서 T자형 핸들이 쉽게 분리돼야 한다. 하지만, 바다 위 수평 상태에서 T자형 핸들이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동종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엔 50여 개의 구명벌 투하 시험 등 점검 업체가 있는데, 진수장치가 기울 상태에서 쉽게 작동되는지에 대

해선 잘 모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들은 설비기준인 좌우 20도·앞뒤 10도 설정해 놓고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바다위 수평 상태에서 투하 시험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생명선인 구명벌 진수장치가 제때 작동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선인 구명벌을 바다에 떨어뜨리는 진수장치에 대한 개선 및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경기도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기 시작한 24일 오전 등교하던 학생들이 노제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는 후배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에 최초 신고 학생 결국 시신으로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광주일보 4월 23일자 1면)의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인 단원고 학생 A군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전남 4층 선미 부분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A군의 부모가 시신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아들 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지문, DNA검사, 치아 등 정확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추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광복항 임시 안치소에서 A군의 신분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는 첫 신고전화를 걸었다.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으로, A군은 당시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바꿔 드릴까요?"라며 구조 요청을 했다. 해경은 이후 A군 신고전화를 소방본부로부터 견제받고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단원고 3학년 '눈물의 등교' 수업 재개...4교시 심리치료 받고 하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임시 휴교에 들어간 단원고가 24일 3학년 수업을 재개했다.

학교 주변은 참사의 아픔을 품은 듯 화사한 봄날이었지만 쓸쓸한 분위기였고 9일 만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오전 7시 안산시 단원고 교장동 단원고 앞.

1교시가 아직 1시간 20분에 남았지만 벌써부터 서둘러 오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다.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걷던 학생들은 교문 주위에 있는 사고의 흔적들에 잠시 눈을 맞췄다가 곧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교문에 실종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쪽지글이 형형색색 붙어 있고 그 앞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희생자를 추

모하는 국화꽃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다.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여념이 없을 때지만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잠시 뒤 희생자 김모양의 시신을 태운 운구차가 마지막 등교를 위해 교문 앞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옆으로 비껴서서 길을 터줬다.

검정색 장의차량을 따라 교실로 향하

는 아이들의 축 쳐진 어깨에선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단원고 옆 단원중 학생들의 등굣길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모두 말없이 정면만 응시한 채 걷는 아이들만 눈에 들어왔다. 오전 8시 20분 1교시 종이 울림과 동시에 희생자 조모양의 실은 운구차가 교문을 통과했다.

운구차는 5분여 동안 학교를 돌러본 뒤 바로 나와 응인 평은의 숲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낮 12시에는 단원고 관계자들이 나와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정운선 학생건강지원센터장은 "오늘 심리치료 교육을 해보니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학생은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했다"며 "아이들에게 '애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방향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해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학교에는 3학년 505명 가운데 480명이 출석해 4교시까지 심리치료 수업을 받고 하교했다.

24명은 사망자 유족이거나 발인 일정에 참여했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결석한 학생은 1명이었다. /연합뉴스

구조된 5세 여아 엄마 숨진채 발견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5세 여아의 어머니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밤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세월호 사고 현장 수색 과정에서 한모(29)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씨의 시신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진도 광복항에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2시께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했다.

베트남 출신인 한씨는 사고 당일 여러 승객의 도움으로 구조된 권모(5)양의 어머니다. 사고 당시 한씨는 마지막까지도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히고 등을 떠밀어 권 양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권모(52)씨와 아들(6), 딸 등 일가족이 서울 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갈갈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배길로 이사를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딸만 홀로 구조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gstec.or.kr

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를 갖춘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회의실



대연회장



레스토랑



객실

행사가능시설
(특급호텔 위탁운영)

- 레스토랑 : 150석규모, 다양한 메뉴, 저렴한 가격
- 각종 규모 회의실 : 10석이상 최대 130석, 가변형 등 총 450석 규모의 회의장, 5개 회의실 보유
- 숙박시설 : 총 31실(양실, 한실)
- 다양한 편의시설 : 헬스클럽, 사우나, 은행, 편의점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협력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S.T.E.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 단체 행사와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며
-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G S T E 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학단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 및 예약
062)609-0500~1